



[뉴스]
따로 놀던 삼성 IoT,
이젠 '스마트싱스'로
통한다
03



코스피 2385.38 (+21.61)	↑	코스닥 843.24 (+0.64)
금리 (국고채 3년) 2.30 (+0.02)	↑	환율 (원·달러) 1084.60 (-7.50) (12일)



날리는 스노보더 '클로이 김'

12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공중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中企기술 탈취하면 피해액 최대 10배 물어줘야

당정, 中企 기술탈취 근절대책

중기부 등 6곳 참여 TF 발족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줘야 한다.

기존에 3배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다.

지금까지는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등 침해 당사자가 '침해 주장 회사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기술 관련 비밀자료를 요구할 경우엔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체결하도록 법으로 강제키로 했다. 위반시엔 벌칙을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관련 컨트롤타워를 맡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이 두루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

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 비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하면서 '기술탈취' 문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첫 단추를 뗀 셈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 도입한다. 여기엔 대·중소기업 간 협상시 오가는 제안서, 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 전반 자료뿐만 아니라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을 모두 담아 향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임차수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신규 임차기업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던 수수료를 20만원으로 낮췄다.

홍 장관은 "검찰, 경찰,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 부처가 보유한 조사와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행정적 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의 시정권과 등권한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韓美日 통화권력 동시 교체기 불확실성에 떠는 '글로벌 금융'

美 Fed 의장에 제롬 파월
BOJ 총재 구로다 연임 확정
이주열 한은총재 만료 앞둬
새로운 금융환경 전개 예고
물가안정·통화정책 등 관심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들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일각에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다. 실제 이 달 들어 글로벌 증시는 금리상승 우려가 강화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금리는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년간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해온 재닛 엘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달 초 임기를 마치고 제롬 파월 의장에게 새 왕관을 넘겨줬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연임이 확정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금융환경이 전개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 안정 등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펼칠 정책과 역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준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취임 첫 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골치 아픈 상황과 마주했다. 이날 뉴욕증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외신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머리가 아플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 재고조, 경제 과열 및 버블 붕괴 가능성 등은 파월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美 파월 의장 취임 날 '블랙 먼데이' 연출

한은은 파월 의장에 대해 매파(통화긴축 선호)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아닌 '울빼미파'로 분류하고 있다. 재닛 엘런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명한 판단을 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재닛 엘런 전 의장의 '비둘기파'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인

준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점진적 축소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세 차례, 내년 세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 등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기조를 따르며 월 100 억 달러 규모의 느슨한 자산 축소 방침도 고수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것으로 점쳐왔다.

다면 최근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네 차례 올릴 것 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파월 체제'의 긴축 스케줄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파월 의장 취임 첫 날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검은 월요일(블랙 먼데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 코노미스트는 "과거 벤 버냉키, 재닛 엘런 의장 취임 당시에도 새로운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 증시가 조정을 겪어왔다"며 "파월 신임 의장은 엘런 전 의장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의장의 '완만한 긴축

기조'가 확인되면 금융시장의 불안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日 구로다 총재 연임 확정…엔저·양적완화 지속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오는 4월 만료되지만 일찌감치 연임이 결정됐다.

구로다 총재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에 맞춰 그간 대규모 돈 풀기 외에 앤저를 통해 일본 경제를 이끌어 왔다. 구로다 총재의 연임으로 미국 등 긴축 움직임과 반대로 엔저, 양적 완화 등 정반대의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2% 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통화정책을 지속해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의 이 같은 경제 정책은 일본 내에서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3면에 계속)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롯데, 신입사원 AI로 뽑는다

신동빈의 '디지털 전환' 시동 자소서 표절 진위 검증 등 주요 계열사 시범 도입

롯데그룹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신입사원 공채에 AI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는 롯데가 처음이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디지털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신 회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IC T기술을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 적용해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은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부터 서류전형에 AI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그룹의 전 계열사가 참석한 채용담당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부'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서를 분석해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어울리는 우수 인재인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먼저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는 우수 인재의 성향 및 패턴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자의 정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지원자의 직무적합도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특성 및 지원자격 요건과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직무관련 경험 등을 비교 분석해 판단한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직무 중심으로 선발하는 고유 블라인드 채용 전형인 '롯데 스펙테이션 채용'에 직무적합도 분석을 접종 적용하기 위해 기존 직무 관련 과제 제출과 함께 직무 관련 보유역량 기술서를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작성의 진위여부 검증을 돋기 위해 각종 인터넷 웹페이지·공공·학술자료 빅데이터와 연동해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을 자기소개서에서 도출해낸다.

롯데는 AI시스템이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백화점, 마트 등 주요 계열사에 시범 적용한 후 적용 계열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서류전형의 평가방법을 병행하고, AI의 심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기소개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련 기술과 알고리즘이 정교해지면 반영범위와 반영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입사원 채용 외에 경력사원 채용, 직원 평가·이동·배치 등 인사 직무 전반의 영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